



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

콘텐츠 유형: 스팟르포르타주

사진 및 글: 이상훈

미래주택

래미안갤러리 및 U dream hall은 미래주택을 예측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.

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시스템 U-home , U- CITY, U- BUSINESS 미래생활 공간과 최신 IT제품 전시 미래 가정환경, 사무실, 상점 및 카페 등을 체험할 수 있다.



Story 1.현관

U dream hall (광화문 위치)



<사진1>



<사진2>



<사진3>

처음 입구의 모습들이다. 현재의 모습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을까?.. 라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입구에 들어섰다. <사진1>과 같이 SF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. 동공으로 입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미래주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. <사진3>은 무인시스템이다. 택배가 왔을 경우, 화면상의 컴퓨터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우편함을 열어주며, 보관을 하게 된다. 또한 누가 다녀갔는지 사람의 입,출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집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
Story 2.거실



<사진4>



<사진5-U-dream>



<사진6 래미안>

<사진4>은 집안을 청소하며, 집안을 관리하며, 서포터역할을 해주는 미래주택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중 하나인 로봇이다. 집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이한다.

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건 TV리모컨이 아닌가 싶다. 래미안 및 U Dream hall 역시 TV에 관한 것들은 비슷했다. TV를 통해 집안의 모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. TV라는 매체를 통해 IT적인 요소나 유비쿼터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조명조절 및 영화관람 사진 휴대폰 관련 시스템등 여러가지가 있다.

Story 3. 주방



<사진7-래미안>



<사진8-래미안>

주방의 모습이다. 주목해서 보게 된 부분은 바코드를 이용한 시스템이다. 음식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, 유통기한에서 부터, 재료를 이용한 요리법이 나와 음식을 쉽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 재료 또는 음식과 어울리는 외적인 음식 및 재료까지 가르쳐 준다. 예를 들면, 새우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. 추천을 해주었다면, 와인을 버튼하나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.

주방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지만, IT적인 기반을 둔 바코드 RFID 및 마트와의 연계, 인터넷을 이용한 음식 추천등이 현재의 모습과 차이점이다.

Story 4. 욕실



<사진9-래미안>



<사진10-래미안>

<사진9>은 집의 욕실에서 조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미디어를 즐길 수 있으며, 그 외 운동에 관한 시스템이 들어있어, 개인의 신체에 맞게 운동시스템을 조절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.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환경설정이 가능하다. 운동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화면을 통해 컴퓨터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.

<사진10>은 물의 온도를 시각적인 빛으로 보여주어 온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다.

Story 5. 여가 및 외출



<사진11>



<사진12>

<사진11>는 옷을 입을 때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옷의 매치 및 느낌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. 바지에 맞는 티셔츠를 추천을 해주어 옷을 구매할 수도 있다. 아마 이 시스템이 모든 집에 설치가 된다면, 워스트 드레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. 컴퓨터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...

<사진12>은 태양열을 이용한 벤치이다. 태양열을 충전시켜 햇빛이 없는 날에 태양열을 사용하는 벤치. 미래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아파트 시설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에코디자인과 일맥상통한다.

그 외에도 조리대는 키에 맞춰지고 개수대에 수도가 숨어있다 필요할 때 나와 사용자의 작업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부분. 전자책 읽을 때 그에 맞는 분위기(음악 배경화면)로 바꿀 수 있으며. 아이방에 빔으로 쏘아 벽지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눈에 들어왔다.

•과연 현시점에서 미래 주택에 대하여 예측을 하여 공간을 재현하였지만 일정부분 실현가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,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. 현재의 기술에서 다른 기술이 발전하여 위와는 다른 미래주택으로 예측이 바뀔 수도 있다. 현재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순간 주택에 들어와 있으며,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미래주택 체험관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. IT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미래주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. 자연친화적인 부분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에코디자인을 고려하여 미래주택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?...